

2016 여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그림속세상지역아동센터



2016. 7

그림속세상지역아동센터 염*애

봉사를 하러 포항으로 내려가기 며칠 전부터 걱정만 앞섰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봉사를 하러 포항으로 가는 날이 되자, 어두컴컴한 새벽에 일어나 서울역에 도착해 팀원들과 함께 포항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가는 센터가 포항역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가량 떨어져 있어 센터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겨우 센터에 도착하고 센터장님과 대표님의 주의사항과 당부사항을 듣는 순간 4박5일 동안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처음 센터 내 학습실에서 마주한 순간, 생각보다 아이들 인원수가 너무 많고 일부 남자 아이들의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을 하며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처음에는 호의적이지 않은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며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과 격리되어 사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어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동안은 최대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며 이것저것 질문해 주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속 깊은 마음에 깜짝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그 나이대의 아이들보다 성숙한 면도 많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100% 수행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기에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각각 센터 자체 프로그램들을 가야했기 때문에 4박 5일 동안 많이 같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35명의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화봉사단 6명의 인원으로는 너무 벅찼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못 나눈 아이들도 많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센터에 와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이들을 관리해줄 제도나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전부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림속세상지역아동센터 서*혜

봉사활동을 신청한 계기는 특별한 계획이 없던 여름방학에 그나마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청할 때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활동기간이 좀 멀다보니 초심을 잃었던 것 같기도 하다. 또 준비 기간 동안은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막상 떠날 때가 되니 평소 아이들을 대할 일이 없던 내가 처음 보는 팀원들과 함께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서 아이들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다. 가기 전에는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들이 대하기 더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은 구제불능이었고 중학생들이 우리를 도와주었다.

계획해간 프로그램 하나하나 할 때,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따라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조금 지내다보니 '아이들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년 오는 이화 봉사단인데, 비슷한 프로그램만 하다 보니 지루할 법도 했다.

사실 처음에는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거나 장난 식으로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 힘들었는데, 자꾸 말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좀 더 잘해 주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 모두 이런 봉사활동은 처음이라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 부족했던 것 같다. 봉사를 하러가서 내 편한 대로만 있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즐거웠다면 좋겠다. 혹시나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진 않았을까 지금도 걱정되고 미안하다. 팀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봉사활동 경험의 차이라는 점을 느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음 방학에도 이화 봉사단에 참여해 더 능숙하고 친근하게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다. 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특히 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외로워한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내가 그 빈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점들만 떠오르는 건 다 지나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일 텐데, 막상 활동 기간 중에 큰 문제가 있던 적은 없다. 하지만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떠난 게 마음에 걸려 더 반성하게 되는 것 같다. 포항에 갈 일은 없지만, 나중에 한번 들려보고는 싶다. 더 친해지지 못한 아이들과도 더 이야기 해보고 싶고, 친해지려다 헤어진 아이들과는 더 친해지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봉사활동이었지만, 좋은 팀원들과 아이들과 4박 5일 보낼 수 있던 건 새로운 경험이었고, 좋은 추억이다.

그림속세상지역아동센터 김*빈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기 전에 뜻 깊은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찾던 중에 이화봉사단을 알게 되었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화봉사단이 파견되는 여러 지역 중에서 집과 가장 가깝고, 가장 친숙한 곳이 포함이었기에, 포함 그림속세상 지역아동센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화봉사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기대와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또한 센터와의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준비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센터에 도착해서도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봐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도착해서 소장님의 주의사항을 듣고 난 후 생각보다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서 혹여나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처음에는 행동 하나하나가 많이 조심스러웠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첫날부터 계획한 대로 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기에 앞으로의 일정 역시 이처럼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아이들과 인사를 한 후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다소 산만하고 거친 말투를 사용해서 많이 놀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박 5일을 함께 지내면서 이 선입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이 아이들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서툴 뿐, 여느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때 묻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아이들과 놀이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먼저 저희에게 다가와서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저도 스스럼없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에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고, 역사교육, 부채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서 의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장난기가 많았던 남자 아이들이 의외로 역사 교육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뒤에서 조용하게 앉아있던 중학생 아이들 역시 활발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역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채 만들기를 할 때는 센터의 다른 수업을 들으러 간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못해 많이 아쉬워했는데 재료를 좀 더 많이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습니다. 셋째 날에는 체육대회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었습니다. 미숙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좋아해줘서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페인팅이 끝난 후에는 모두와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으나 폭염으로 인해서 좁은 강당에서 하게 되었는데, 사전 준비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추억을 남겨줄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넷째 날 경제교육을 할 때 역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어서, 저도 더 열심히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모르게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저희들 걱정부터 해주던 아이들, 손을 꼭 잡고, 껴안으면서 애정을 표현했던 친구들, 장난기 가득한 말투로 친근하게 대해주었던 아이들 모두 봉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기억이 날만큼 모두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서 갔던 곳에서 오히려 더 큰 애정과 배움을 얻고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이화봉사단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아이들과 만나서 함께 배워나가고 싶습니다.